

## 결의대회 참여열기 뜨겁다

- 1천2백여명 웃돌 듯, 국회의원·언론사대표 등 양록문외한도 동참 -

뉴질랜드 절편녹용을 막아내기 위한 양록인들의 참여열기가 뜨겁다.

본회 회원 및 양록농협 조합원, 사슴산업 연구회 회원 등과 더불어 지역 녹우회 및 개인별 참석 의사를 밝히는 사람이 속속 늘고 있어 최초 예상했던 1천여명선을 넘어 현재 1천2백여명선의 행사 참여 인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1천5백명 선까지도 가능하다는 장밋빛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면에는 본회 지회장들의 각별한 노력이 깃들여져 있다. 지역 회원 농가는 물론, 비회원농가까지 일일이 방문하며 참여를 독려했던 결과가 결실로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 본회에서 발송한 7천여통의 참여 독려문도 한몫을 거두고 있다.

지역 녹우회 및 양록인 친목모임 등에서 소식을 접한 이들은 위기상황에 처한 한국 양록에 방관만 할 수 없다며 속속 참여 의사를 밝혀 금번 대회를 화합의 장으로 이끌어가는데 보탬을 주고 있다.

개별농가 또한 마찬가지. 개인적 참석이 힘들다며 지역에서 출발하는 타 단체의 일

정을 묻는 전화도 속속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것은 국회의원 및 언론사 대표, 축산 및 농민단체장들이 범양록이 결의대회 명예위원으로서 참여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그동안 양록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나 지식이 없는 이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행사 당일 직접적인 참여는 불가능하더라도 명예위원을 수락함으로써 양록에 관한 위기상황을 이해하고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불러오기까지는 그 동안 각종 단체장 모임 및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양록현실을 주창한 본회 김은성 회장의 노력이 적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김은성 회장은 여러차례에 걸쳐 축산관련 단체장 및 기타 안정적 양록산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들을 본인 농장으로 초청, 양록산업의 현실을 이해시키고 당면과제들을 설명하며 협조를 부탁했기에 가능했다.

이에 대해 김은성 회장은 “양록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인사들을 만날 때면 힘이 빠지기 일쑤였다”며 “국내 양륙산업을 이해시키고 문제점을 건의하기 위해 절대로 각종 회의 및 모임에는 빠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이제는 각종 단체장 및 국회의원들들도 어느정도 국내 양륙산업을 이해하고 있다 생각하며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금번 결의대회에 명예위원을 수락한 인원은 장성원 민주당의원, 박재욱 한나라당

의원, 원철희 자민련 의원 등 총 48명이다.

따라서 금번 결의대회는 비록 양륙 비전문가이지만 양륙 현실을 널리 알릴 수 있고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인사들의 참여로 더욱 뜻깊은 행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고 있다. 여기에 계속해서 참여의사를 밝히는 농가가 늘고 있어 9월11일 실시되는 행사는 양륙 사상 유례없는 크고 성공적인 행사로서 양륙역사에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다. **인국양륙**

## 추진위원회 명예위원 명단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장성현 의원(민주당), 박재욱 의원(한나라당), 원철희 의원(자민련)

### <농축산 언론사 대표, 가나다 순>

강성수(한국농정신문), 강정호(농축정보신문), 김기운(축산경제신문)

김창석(농축유통신문), 윤봉중(축산신문), 이희석(한국영농신문)

전정희(농수축산신문), 황민영(한국농어민신문)

### <농업 및 축산단체장, 가나다 순>

강춘성(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 김건태(대한양돈협회장), 김남용(한국낙농육우협회장)

김흥재(한국기독교농민회장), 류재춘(한국관광농원협회장), 박순용(한국종축개량협회장)

박흥수(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송석우(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

신정재(한국동물약품협회장), 엄성호(전업농중앙연합회장), 유영삼(전국버섯생산자협회장)

윤효직(한국유가공협회장), 이규석(전국한우협회장), 장대석(한국양계협회장)

정경진(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장), 정일영(한국사료협회장), 정진성(한국계육협회상무)

정진영(한국유기농업협회부회장), 최성희(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장)